



임실읍,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임실읍이 호국보훈을 달을 맞이하여 운수과출소장(박인규)과 함께 지난 8일 전상군경 유족 강모(87) 씨 댁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된 명패를 달아드렸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임실읍은 전상군경, 전물군경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 24세대에 읍장, 사회단체장, 마을어장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 추진

이원주 남원시장과 이윤신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9일 남원시 송동면의 전물군경유족회 남원시지회(왕수만) 가정과 전물군경미방인회 남원시지회(박바래)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 드렸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의 집 490가정을 시작으로 2020년에 베트남 참전유공자와 무공·보국수훈자, 5.1희생자 집 281가정에

남원소방서,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학급 모집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어린이들의 화재 등 생활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학습·평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1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학급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자연 재난·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익히고 안전 문화 확산을 기여하도록 매년 시행되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으로 학급 단위 18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학급 인원이 18명 미만이면 2개 이상의 학급 또는 4~6학년 전원이 합쳐 참가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조부안집' 감사패 전달

부안군, 신근식 대표에 어머니 고향 '부안' 지역 이미지 기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어머니의 고향 부안을 모티브로 프랜차이즈 업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면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돈육 프랜차이즈 업체 '원조부안집' 신근식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국 72호 가맹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원조부안집은 신근식 대표의 고깃집 창업 브랜드로서 신 대표 어머니 김순덕 여사의 고향 부안을 스토리텔링해 전라도 파김치를 기본으로 직화구이시스템에 육즙목살과 숙성삼겹살 등 돈육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머니의 고향 부안을 잊지 않고 지역명을 프랜차이즈업명으로 사용해 준 신근식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원조부안집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외식산업 대표주자로 우뚝 서고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근식 대표는 "부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가 수십년이 지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가치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안과도 농특산물 판매 등 상생 협력하는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바이오영농조합, 인재 양성 위한 장학금 200만원 전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국바이오영농조합(대표 국우준)은 9일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바이오영농조합은 2018년 부병 장병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2020년에는 희망 나눔 성금을 기탁하는 등



양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맡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 교육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우준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후배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군 농협·자봉센터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활동 실시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와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9일 순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나눔 활동에서는 농협순창군지부에서 준비한 간편식 삼계탕 150개와 순창군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수박청을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김현수 지부장은 "때 이른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



바라다"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삼순 소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회계과, 농촌일손돕기 동참

김제시 회계과는 지난 7일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의 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동참했다. 이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직원들은 햇볕이 뜨거워진 더위에도 5,000원에 이르는 배 과수원을 찾아 배에 봉지를 씌우는 등 작업을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일손 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시름하는 농가에 힘을 보태었다.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해 힘든 와중에 적기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 회계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극심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여 영농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일손돕기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덕면, 고령 농가 일손돕기 지원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민영) 직원 9명은 영농기를 맞아 9일 공덕면 회룡리 서촌마을 이모자 농가의 육묘장에서 12필지분의 모판 나르기, 이앙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코로나 지역 확산 우려까지 겹친 가운데 농촌 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육묘장 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농기주 문 모씨는 "무더운 날씨에 이모자 농업 일손이 부족한 때를 맞추어 일손 지원을 해주어 함께 해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우범지역 탄력순찰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김태호) 도동지구대(대장 박홍규)는 9일 효산공단 및 물방개 워터파크 등 관내 우범지역의 범죄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탄력순찰을 실시했다.

특히 2006년 이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효산공단은 여름철 공포채험을 하려는 외부인들과 비행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빈번히 신고가 들어오는 곳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동지구대는 야간시간대 도보순찰 및 순찰차를 이용한 가시적 순찰을 실시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홍규 도동지구대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탄력순찰을 실시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